

무슨 일이든 생각나는 즉시 실천해야 새로운 경험이 쌓여 높은 경향치를 얻을 수 있다. 생각나는 즉시 실행에 옮기면 일의 처리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하여 남보다 빨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일을 빨리 끝내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간의 여유가 생겨 업무의 질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업무처리 요령은 생각나는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뇌의 기본 회전수를 높여려면 시간계약이 필요하다. 시간계약을 부여하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인하여 뇌의 회전수가 올라간다. 시간에 한계가 주어지면 긴장감이 생긴다. 꼭 해야 되는 일은 일과표를 만들어 각 작업에 대한 소요시간을 정해서 일을 처리하면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15분 단위로 세분화한다. 그러한 단순반복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된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즉시 일을 시작하고 중간 중간 의뢰인에게 점검 및 조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며 고민하기 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본다. **일의 순서는 의뢰받은 순서대로 처리하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한다.** 대부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처리하고 까다롭고 귀찮은 일은 뒤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까다롭고 귀찮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까다롭고 귀찮



실행력



은 일을 먼저 처리해야 나머지 시간에 여유 있게 다른 일을 볼 수가 있다.

완벽주의는 금물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일에 대한 걱정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라. 막상 시작해보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 일을 하다가 잘 모르는 업무이거나 시간 관계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에 기꺼이 응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Plan - Do - Check - Action 의 계

확고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사이클을 잘 활용하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업무 시작 전에 그날의 일과 순서를 생각으로 미리 정리해 두었다가 일을 진행하면 정제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일을 진행하다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보강한다. 계획이란 으레 고치고 바뀌어 가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첩을 활용하라. 항상 필기도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

라. 수첩이 일정관리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보다 빠르고 인간적이다. 손으로 적는 일정과 목표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상기시켜 준다. 생각나는 즉시 메모하라. 좋은 생각은 부지불식간(不知不覺間)에 떠오른다. 그 생각을 잡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즉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잊어버리게 된다.

시간이 날 때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둔 서류가 1년이 넘었다면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니 과감하게 버려라. 다급하지 않은 유사한 일들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일상적인 일은 시간을 따로 내어 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복잡을 단정히 하면 생각도 맑아져 일에 집중이 잘된다. 웃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할 것 같이 보인다.

자신을 위하여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무한 경쟁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라. 노래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모방에서부터 비롯된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된다. 무슨 일을 하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구원의 자격

The Qualification for Salvation

영생의 길은 영생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의해서는 갈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면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없다.

▶ The path to immortality cannot be mastered by those who do not have their own qualifications. Without qualifications, no one can go this way.

오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럼 구원의 자격은 무엇인가? 구원의 자격자는 피가 맑아야 한다. 당신은 육천년간 더럽혀진 더러운 피를 맑히려야 한다.

▶ You know that only the man qualified deserves salvation. Then, what are the qualifications for salvation? They are that the blood should be clean. You must cleanse your dirty blood that has been polluted by sin for six thousand years.

당신이 이슬성신을 받을 때 당신의 피는 깨끗해지고 모든 죄가 소멸된다. 이것은 눈이 불에 의해 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길 정의 태양은 죄가 치유 받을 때 떠오르며 이슬은 실제로 죄를 치유시키는 빛이다.

▶ When you receive Dew, your blood becomes clean and all sins are removed, as the snow melts away in the fire. The Bible says,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Dew is the actual healing ray.

사실, 하나님이 말하시길 영생의 세계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흡사 검은 석탄이 하얀 눈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것이다.

▶ Truly, the God says, the dimension of immortality cannot be attained by one's own efforts. Such doings resemble coal (black) wishing to make friends with snow (white).

당신이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 면허를 따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신은 영생의 기쁨과 환희를 얻을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 Just like you must have drivers license to drive a car, it is not until you have your qualifications that you deserve the joy and happiness of immortality.

이슬성신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다. 마귀 마음으로 가득찬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다. 신성한 하나님의 이슬성신이 영생의 하나님의 마음에만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Because Dew is the spirit of God, it does not pour out every where. It goes only to those who have clean and pure minds. It does not go to sinful minds; just like the Holy Dew of God comes to the beautiful mind.*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재수가 물 밑 듯하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은혜자는 항상 웃게 되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도 있지만 은혜자는 만나는 자마다 복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와 같다. 이긴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이긴자를 해치는 자는 다 잘못 되고 반대로 구멍가게라든지 슈퍼마켓 등등 이긴자가 거래하는 가게마다 몇 년 안가서 한 이삼년 만 되면 다 집을 사는 등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의 손길이 닿거나 이긴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되는 까닭은, 천운(天運)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천운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긴자에서 인도하는 예배장소에 매일 나오면 일이 잘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되는 것이다. 다만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은 그 덕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긴자를 따르는 가지들이 일상에서 겪는 흥미로운 사례이지만, 승리제단 식구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삼시각에 손님이 물려들을 알 수 있다. 전도부장 안명숙 승사님은 식당이 미어터지는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새식구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승사님과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하~ 우리제단 식구들이 여기에 오니 금세 식당에 손님이 만원을 이루잖아!"라는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신앙생활을 잘 하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체험도 하게 된다. 꾸준함과 겸손이 더해가는 신앙생활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이기신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희생적인 생활을 하면, 안면부지(顔面不知)의 사람으로부터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령을 관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을 절대로 굶겨 죽게 하거나 웃이 없어서 일어 죽게 하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꽃이 말없이 향기를 천리로 퍼뜨리듯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세로 자유율법을 실천하며 하나님님을 위해 살 때,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게 하여 하는 일마다 재수가 물 밑 듯 잘되게 만드니 이 또한 보람된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닌 가!*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틀리기 쉬운 맞춤법①

2회에 걸쳐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열거해 본다. 팔호 속의 단어가 올바른 단어이다.

1. 체언

재떨이 좀 가져와. (재떨이)
철없는 어린애의 등살에. (등살)
쭈꾸미 전문집 (쭈꾸미)
오랫만에 만난 친구 (오랜만에)
오랜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오랫동안)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람)
구년도별 증감률 (연도별)
도착하려면 몇일 걸릴 거야. (며칠)
차돌배기, 맛있어. (차돌박이)
태풍에 선박이 풍지박산 났구나. (풍지박산)
해꼬지 해서는 안 된다. (해코지)
금세 사과하고 금세 풀어지곤 한다. (금세)
남여 사원 모집 (남녀)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예부터)
정상의 나래를 퍼다. (날개)
족집게 고액 과외 (족집게)

이 옷 짜집기해야 해. (짜집기)
넌관지에 앉아 (넌관지)

2. 수식언

깊숙히 파고드는 찔질의 효과 (깊숙이)
나는 농담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일절)
그는 훌훌단신으로 내려왔다. (헐헐단신)
구박거나 받으면서 자랐지. (구박개나)
동화책 속에 내가 주인공이예요. (이예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예를 써야지. (아등바등)
아빠 앞에서 짝자궁 (짜짜궁)
이번 일은 한갓 금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한갓)
철관에 개발개발 나서 (과발개발)
성적이 들쭉날쭉 (들쭉날쭉)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집차니까 으레 양보했는데. (으레)*

이승우 기자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니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

